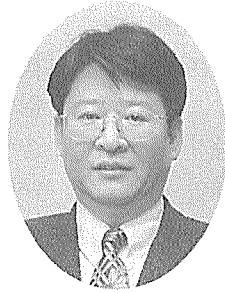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조 용 욱

〈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

극심한 유가 부침

국제유가의 浮沈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

우선 浮의 측면을 보자.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3월 들어서는 WTI 유가가 급기야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일시 등락은 있으나 배럴당 30달러를 넘나드는 강세기조는 여전하다. 중동산 Dubai유도 25달러 선의 등락을 거듭하는 등 걸프전 이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들 유가는 각각 배럴당 13달러, 10달러 내외에서 추이했으니 그동안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특히, 3월 7일에는 산유국 증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 때문에 배럴당 2달러나 폭등하는 등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으로 沈의 측면을 보면, 이란-사우디 석유장관의 '원칙적인 증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3월 8일 유가는 무려 배럴당 3달러나 곤두박질쳤다. 걸프사태 기간 중이던 '91년 1월 중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습한 직후 유가가 10달러나 폭락한 이래 최대 낙폭이다. 결국 이를 동안의 유가 등락폭이 무려 5달러에 달한 셈이다.

이렇듯 유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것은 산유국 감산으로 인해 석유수급이 크게 빠듯한 가운데 산유국 생산정책 향방이 불투명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특히 향후 유가 전망에 따라 석유선물시장에서의 눈치보기 즉, 투기적 매수와 매도가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수년간 석유시장의 금융장세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석유수급 논리만으로는 불충분한 현상들이 빈발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더욱 그러한 감이 든다.

일례로, 최근도 최근이러니와 지난 3개월간에도 OPEC 생산정책을 둘러싸고 현 감산 연장론(1월), 증산 가능성 제기(2월),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증산여부 불투명(3월) 순으로 상황이 반전을 거듭함에 따라 투기적 장세가 극심했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최근 OPEC이 증산쪽으로 생산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하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동안 감산을 통해 현 고유가 상황을 이끌어온 OPEC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는 현 고유가 상황이 진정될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유가는 OPEC의 증산규모 정도와 시기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가운데 OPEC 생산정책 전개를

중심으로 향후 시황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고유가 기조 속의 변화 움직임

전술한 바와 같이 현 고유가는 직접적으로 지난 1년여 간 강도 높게 계속되어온 OPEC의 감산에 연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PEC의 감산에다가 미국 등지의 석유수요 증가 및 재고 격감 등으로 석유수급이 크게 타이트, 공급불안 우려가 큰 가운데 투기자금마저 가세, 고유가 상황이 장기 간 계속되어온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년여 동안 OPEC 회원국들은(이라크 제외 10개국) '98년 산유량대비 일산 430만배럴을 감산키로 합의한 후 현재까지 감산을 지속해오고 있어 수급사정을 악화시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회원국의 산유량은 '98년 일산 2,700만배럴 수준에서 현재는 2,420만배럴 내외로 줄어든 상황이다.

비록 '99년 말부터는 OPEC의 감산 준수 실적이 크게 둔화되어오고는 있으나, 때마침 닥친 동절기 혹한 등에 따른 미국 등 주요 소비지의 석유수요 급증으로 석유수급은 매우 타이트한 실정이었다.

일례로, 올 1분기의 경우 OPEC이 현재 수준의 생산을 계속한다고 가정시 약 200만b/d 가량 공급이 부족(세계 석유수요 7,700만b/d, 공급 7,500만b/d)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급부족분은 재고에서 충당, 현재에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석유재고수준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2월중 미국 민간 원유재고는 2억8,000만배럴로, '7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난방유 또한 1억배럴 수준으로 '89년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미국내 수급불안 우려가 컸다. 또한 휘발유의 경우에도 하절기 대비 재고 증강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년래 최저 수준(1억 9,860만배럴)으로 감소, 향후 하절기 공급불안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석유시장에서는 만일 OPEC이 현

감산시한이 만료되는 금년 3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정도의 감산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급부족이 심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3월 중순 경을 전후하여 이러한 유가 강세기조 속에서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어 석유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OPEC 회원국들간에 증산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 고유가의 고삐를 쥐고 있는 OPEC이 어느 정도로 증산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세계 석유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가추이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OPEC의 생산정책이 관건

OPEC의 생산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산을 하기는 하되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란과 알제리 등 고유가를 선호하는 일부 강경파 회원국들은 증산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거나 혹은 2분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후 그때 유가 상황을 보아가며 증산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OPEC을 주도하는 산유국인 사우디는 가급적 현재의 부족한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만간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현 OPEC 감산시한이 만료되는 올 3월 이후의 증산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OPEC의 생산정책 방향은 오는 4월부

터 현 산유량 대비 120만b/d 내외의 비교적 소폭 증산을 결정하고, 이후 상황을 보아가며 고유가 지속시 추가 증산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는 증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강경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하고, 대폭 증산에 따를지도 모를 유가 폭락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지난 '98년과 같은 유가 폭락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OPEC으로서는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대폭 증산을 한다는 데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증산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 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된다.

OPEC으로서는 멕시코와 노르웨이등 다른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량(30만b/d 내외)까지 감안시 산유국 전체로는 150만b/d를 상회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만큼 이 정도면 수요가 감소하는 2분기 상황에 비추어 급격한 유가 폭락 없는 적절한 유가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100만b/d)

구 분	'99년 평균	2000					증 감 '00-99	
		1/4	2/4	3/4	4/4	평균		
석유 수요	OECD석유수요	47.6	48.7	46.8	48.2	50.0	48.4	+0.8
	비OECD 수요	27.7	28.1	28.5	28.5	28.9	28.5	+0.8
	소 계	75.3	76.8	75.3	76.7	78.9	76.9	+1.6
석유 공급	비OPEC 생산	44.6	45.6	45.3	45.2	46.0	45.6	+1.0
	OPEC원유생산	26.6	26.6	27.8	28.0	28.8	27.8	+1.2
	기 타	2.8	2.8	2.9	2.9	2.9	2.9	+0.1
소 계	74.0	75.0	76.0	76.1	77.7	76.3	+2.3	
재고 증감	-1.3	-1.8	+0.7	-0.6	-1.2	-0.6	-	-
		(-1.8)	(-0.5)	(-2.0)	(-3.3)	(-1.8)	-	-

- ※ 국제에너지기구(IEA) 2월말보고서 참조. OPEC 원유생산은 OPEC이 2분기부터 소폭(120만b/d 내외) 증산 후 4분기중 추가 증산시를 가정하여 전망.
- ※ 재고증감 항목의 하단 ()안은 OPEC미증산시 수치임.
- ※ 반올림 관계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로,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국의 현 산유량은 2,420만b/d 내외(이라크 산유량은 240만b/d) 수준이며, 이러한 안대로 갈 경우 2분기 OPEC 산유량은 2,780

만b/d 수준으로 증가, 현재의 빠듯한 전체 세계 석유수급 사정은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된다. 즉, OPEC이 현 수준보다 120만b/d 내외를 증산하게 되면 2분기 세계 석유수급은 플러스로 전환되며, 이 경우 OPEC이 증산하지 않고 현 생산수준에서 생산량을 억제했을 경우 우려되던 공급 부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분기의 경우 통상적인 추동기 대비 재고 증강(150만b/d 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정도의 증산량 만으로는 충분한 재고 증강은 이룰 수 없으므로, 전체 수급상황은 어느 정도 빠듯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4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이 증산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와 수급에 반영되는 데에는 최소 1달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 현재의 공급부족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투기적 거래동향에 의해 크게 부풀려진 부분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반까지는 Dubai 22~24달러선의 강세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하반기에는 점차 하향 안정세(Dubai 19~21달러 내외)를 찾아갈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OPEC 등 산유국들의 증산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만일 증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 또한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 등 주요 소비국들은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산유국들에 대한 제반의 영향력 행사 등 고유가 진정책을 적극 강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석유수요측면에서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만일 OPEC이 예상보다 대폭(현 산유량 대비 200만b/d 내외)적인 증산에 돌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가 하향 안정 속도가 다소 앞당겨지거나 혹은 전술한 바와 같은 소폭 증산시 전망치에 비해 배럴당 2달러 내외의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